

- 문 1. 다음 <표>와 <보고서>는 2019년 전국 안전체험관과 생활안전에 관한 자료이다. 제시된 <표>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이용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2019년 전국 안전체험관 규모별 현황
(단위: 개소)

전체	대형		중형		소형
	일반	특성화	일반	특성화	
473	25	7	5	2	434

—<보고서>—

2019년 생활안전 통계에 따르면 전국 473개소의 안전체험관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 안전체험관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형이 32개소, 중형이 7개소, 소형이 434개소였다. 이 중 대형 안전체험관은 서울이 가장 많고 경북, 충남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이후 매년 감소하다가 2018년에는 증가하였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이후 매년 줄어들었고, 특히 2018년에 전년 대비 11.2% 감소하였다.

2019년 분야별 지역안전지수 1등급 지역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분야는 서울, 경기, 화재 분야는 광주, 생활안전 분야는 경기, 부산으로 나타났다.

—<보 기>—

ㄱ. 연도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

(단위: 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사망자 수	4,380	4,019	3,973	3,529

ㄴ. 분야별 지역안전지수 4년 연속(2015 ~ 2018년) 1등급, 5등급 지역(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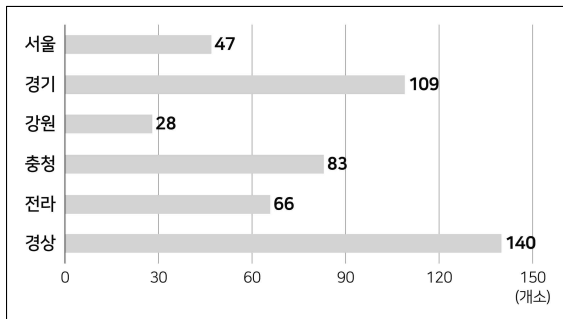
분야 등급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1등급	서울, 경기	—	세종	경기	경기
5등급	전남	세종	제주	제주	부산

ㄷ. 연도별 전국 안전사고 사망자 수

(단위: 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사망자 수	31,582	30,944	29,545	31,111

ㄹ. 2018년 지역별 안전체험관 수



- ① ㄱ, ㄴ
③ ㄴ, ㄹ
⑤ ㄴ, ㄷ, ㄹ

- ② ㄱ, ㄷ
④ ㄱ, ㄷ, ㄹ

- 문 2. 다음 <표>는 아프리카연합이 주도한 임무단의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임무단의 평화유지활동(2021년 5월 기준)
(단위: 명)

임무단	파견지	활동기간	주요 임무	파견규모
부룬디 임무단	부룬디	2003. 4. ~ 2004. 6.	평화협정 이행 지원	3,128
수단 임무단	수단	2004. 10. ~ 2007. 12.	다르푸르 지역 정전 감시	300
코모로 선거감시 지원 임무단	코모로	2006. 3. ~ 2006. 6.	코모로 대통령 선거 감시	462
소말리아 임무단	소말리아	2007. 1. ~ 현재	구호 활동 지원	6,000
코모로 치안 지원 임무단	코모로	2007. 5. ~ 2008. 10.	양주양 섬 치안 지원	350
다르푸르 지역 임무단	수단	2007. 7. ~ 현재	민간인 보호	6,000
우간다 임무단	우간다	2012. 3. ~ 현재	반군 소탕작전	3,350
말리 임무단	말리	2012. 12. ~ 2013. 7.	정부 지원	1,450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임무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2013. 12. ~ 2014. 9.	안정 유지	5,961

—<보고서>—

아프리카연합은 아프리카 지역 분쟁 해결 및 평화 구축을 위하여 2021년 5월 현재까지 9개의 임무단을 구성하고 평화유지활동을 주도하였다. ㉠ 평화유지활동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한 임무단은 ‘소말리아 임무단’이다. 이 임무는 소말리아 과도 연방정부가 아프리카연합에 평화유지군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 ‘코모로 선거감시 지원 임무단’은 가장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하였다. 2006년 코모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프리카연합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3월 시작된 평화유지활동은 선거가 끝난 6월에 임무가 종료되었다.

㉢ 아프리카연합이 현재까지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파견한 임무단의 총규모는 25,000명 이상이며, 현재 활동 중인 임무단의 규모는 소말리아 6,000명, 수단 6,000명, 우간다 3,350명으로 총 15,000여 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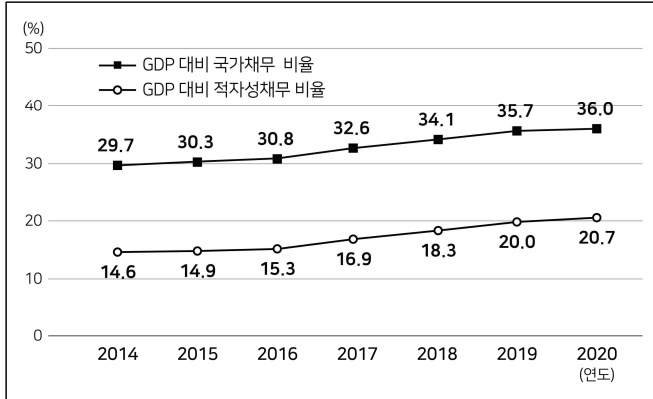
아프리카연합은 아프리카 내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임무단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였다. 특히 ㉣ 수단과 코모로에서는 각각 2개의 임무단이 활동하였다.

현재 평화유지활동을 수행 중인 임무단은 3개이지만 ㉤ 2007년 10월 기준 평화유지활동을 수행 중이었던 임무단은 5개였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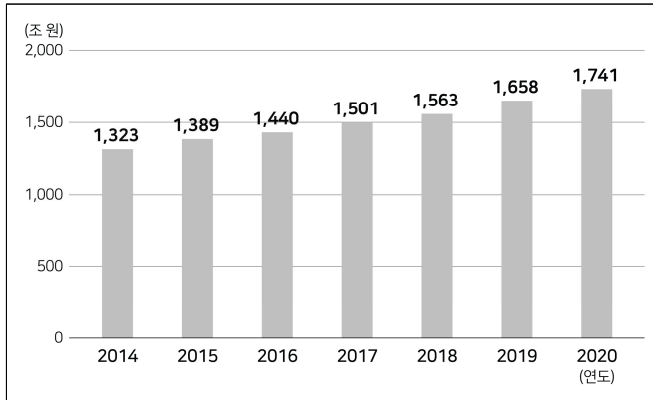
- 문 3. 다음 <그림>은 2014 ~ 2020년 연말 기준 ‘갑’국의 국가채무 및 GDP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1> GDP 대비 국가채무 및 적자성채무 비율 추이



※ 국가채무 = 적자성채무 + 금융성채무

<그림 2> GDP 추이



<보 기>

- ㄱ. 2020년 국가채무는 2014년의 1.5배 이상이다.
 ㄴ. GDP 대비 금융성채무 비율은 매년 증가한다.
 ㄷ. 적자성채무는 2019년부터 300조 원 이상이다.
 ㄹ. 금융성채무는 매년 국가채무의 50% 이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문 4. 다음 <표>는 최근 이사한 100가구의 이사 전후 주택규모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이사 전후 주택규모 조사 결과

(단위: 가구)

이사 전 이사 후	소형	중형	대형	합
소형	15	10	()	30
중형	()	30	10	()
대형	5	10	15	()
계	()	()	()	100

※ 주택규모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만 구분하며, 동일한 주택규모는 크기도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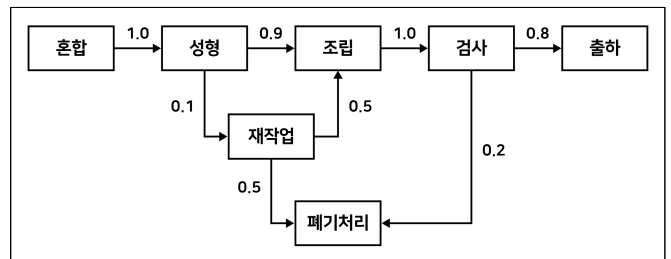
<보 기>

- ㄱ. 주택규모가 이사 전 ‘소형’에서 이사 후 ‘중형’으로 달라진 가구는 없다.
 ㄴ. 이사 전후 주택규모가 달라진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의 50% 이하이다.
 ㄷ. 주택규모가 ‘대형’인 가구 수는 이사 전이 이사 후보다 적다.
 ㄹ. 이사 후 주택규모가 커진 가구 수는 이사 후 주택규모가 작아진 가구 수보다 많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 문 5. 다음 <그림>은 A사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공정도이다. 1,000kg의 재료가 ‘혼합’ 공정에 투입되는 경우, ‘폐기처리’ 공정에 전달되어 투입되는 재료의 총량은 몇 kg인가?

<그림> A사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공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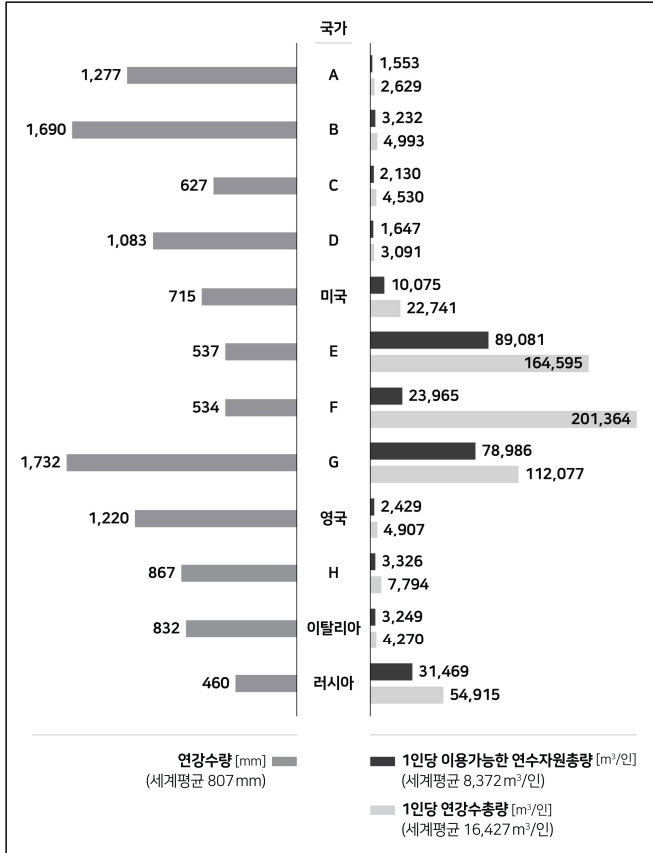
※ 제조공정도 내 수치는 직진율 (= 다음 공정에 전달되는 재료의 양 / 해당 공정에 투입되는 재료의 양)을

의미함. 예를 들어, [가] $\xrightarrow{0.2}$ [나]는 해당 공정 ‘가’에 100kg의 재료가 투입되면 이 중 20kg (= 100kg × 0.2)의 재료가 다음 공정 ‘나’에 전달되어 투입됨을 의미함.

- ① 50
 ② 190
 ③ 230
 ④ 240
 ⑤ 280

- 문 6. 다음 <그림>은 12개 국가의 수자원 현황에 관한 자료이며, A~H는 각각 특정 국가를 나타낸다. <그림>과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국가명을 알 수 없는 것은?

<그림> 12개 국가의 수자원 현황



<조 건>

- '연강수량'이 세계평균의 2배 이상인 국가는 일본과 뉴질랜드이다.
- '연강수량'이 세계평균보다 많은 국가 중 '1인당 이용가능한 연수자원총량'이 가장 적은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 '1인당 연강수총량'이 세계평균의 5배 이상인 국가를 '연강수량'이 많은 국가부터 나열하면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이다.
- '1인당 이용가능한 연수자원총량'이 영국보다 적은 국가 중 '1인당 연강수총량'이 세계평균의 25% 이상인 국가는 중국이다.
- '1인당 이용가능한 연수자원총량'이 6번째로 많은 국가는 프랑스이다.

- ① B
② C
③ D
④ E
⑤ F

- 문 7. 다음 <표>는 학생 '갑' ~ '무'의 중간고사 3개 과목 점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갑' ~ '무'의 중간고사 3개 과목 점수

(단위: 점)

과목 \ 학생	갑	을	병	정	무
	남	여	()	여	남
국어	90	85	60	95	75
영어	90	85	100	65	100
수학	75	70	85	100	100

<보 기>

- ㄱ. 국어 평균 점수는 80점 이상이다.
- ㄴ. 3개 과목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과 가장 낮은 학생의 평균 점수 차이는 10점 이하이다.
- ㄷ. 국어, 영어, 수학 점수에 각각 0.4, 0.2, 0.4의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이 가장 큰 학생은 '정'이다.
- ㄹ. '갑' ~ '무'의 성별 수학 평균 점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문 8. 다음 <표>는 2021 ~ 2027년 시스템반도체 중 인공지능반도체의 세계 시장규모 전망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시스템반도체 중 인공지능반도체의 세계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분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시스템반도체	2,500	2,310	2,686	2,832	()	3,525	()
인공지능반도체	70	185	325	439	657	927	1,179
비중	2.8	8.0	()	15.5	19.9	26.3	31.3

<보 기>

- ㄱ. 인공지능반도체 비중은 매년 증가한다.
- ㄴ. 2027년 시스템반도체 시장규모는 2021년보다 1,000억 달러 이상 증가한다.
- ㄷ. 2022년 대비 2025년의 시장규모 증가율은 인공지능반도체가 시스템반도체의 5배 이상이다.

-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문 9. 다음 <표>는 A ~ H 지역의 화물 이동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화물의 지역 내, 지역 간 이동 현황
(단위: 개)

도착 지역 출발 지역	A	B	C	D	E	F	G	H	합
A	65	121	54	52	172	198	226	89	977
B	56	152	61	55	172	164	214	70	944
C	29	47	30	22	62	61	85	30	366
D	24	61	30	37	82	80	113	45	472
E	61	112	54	47	187	150	202	72	885
F	50	87	38	41	120	188	150	55	729
G	78	151	83	73	227	208	359	115	1,294
H	27	66	31	28	94	81	116	46	489
계	390	797	381	355	1,116	1,130	1,465	522	6,156

※ 출발 지역과 도착 지역이 동일한 경우는 해당 지역 내에서 화물이 이동한 것임.

— <보 기> —

- ㄱ. 도착 화물보다 출발 화물이 많은 지역은 3개이다.
 ㄴ. 지역 내 이동 화물이 가장 적은 지역은 도착 화물도 가장 적다.
 ㄷ. 지역 내 이동 화물을 제외할 때, 출발 화물과 도착 화물의 합이 가장 작은 지역은 출발 화물과 도착 화물의 차이도 가장 작다.
 ㄹ. 도착 화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출발 화물 중 지역 내 이동 화물의 비중도 가장 크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ㄷ, ㄹ

문 10. 다음 <표>와 <대화>는 4월 4일 기준 지자체별 자가격리자 및 모니터링 요원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대화>를 근거로 C와 D에 해당하는 지자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지자체별 자가격리자 및 모니터링 요원 현황(4월 4일 기준)
(단위: 명)

구분		지자체	A	B	C	D
내국인	자가격리자		9,778	1,287	1,147	9,263
	신규 인원		900	70	20	839
	해제 인원		560	195	7	704
외국인	자가격리자		7,796	508	141	7,626
	신규 인원		646	52	15	741
	해제 인원		600	33	5	666
모니터링 요원			10,142	710	196	8,898

※ 해당일 기준 자가격리자

= 전일 기준 자가격리자 + 신규 인원 - 해제 인원

— <대 화> —

갑: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의 4월 4일 기준 자가격리자 및 모니터링 요원 현황을 보기로 했는데, 각 지자체의 상황이 어떤가요?

을: 4개 지자체 중 세종을 제외한 3개 지자체에서 4월 4일 기준 자가격리자가 전일 기준 자가격리자보다 늘어났습니다.

갑: 모니터링 요원의 업무 부담과 관련된 통계 자료도 있나요?

을: 4월 4일 기준으로 대전, 세종, 충북은 모니터링 요원 대비 자가격리자의 비율이 1.8 이상입니다.

갑: 지자체에 모니터링 요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개 지자체 가운데 대전이 가장 높으니,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모니터링 요원을 대전에 우선 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봅시다.

C

D

- | | |
|------|----|
| ① 충북 | 충남 |
| ② 충북 | 대전 |
| ③ 충남 | 충북 |
| ④ 세종 | 대전 |
| ⑤ 대전 | 충북 |

문 11. 다음 <그림>과 <조건>은 직장인 ‘갑’ ~ ‘병’이 마일리지 혜택이 있는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출근하는 방법 및 교통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근거하여 월간 출근 교통비를 많이 지출하는 직장인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그림> 직장인 ‘갑’ ~ ‘병’의 출근 방법 및 교통비 관련 정보

집

도보 · 자전거로 이동

대중교통 이용

도보 · 자전거로 이동

회사

이동거리 A [m]

출근 1회당 대중교통요금 [원]

이동거리 B [m]

월간 출근 횟수 [회]

저소득층 여부

직장인	이동거리 A [m]	출근 1회당 대중교통요금 [원]	이동거리 B [m]	월간 출근 횟수 [회]	저소득층 여부
갑	600	3,200	200	15	○
을	500	2,300	500	22	×
병	400	1,800	200	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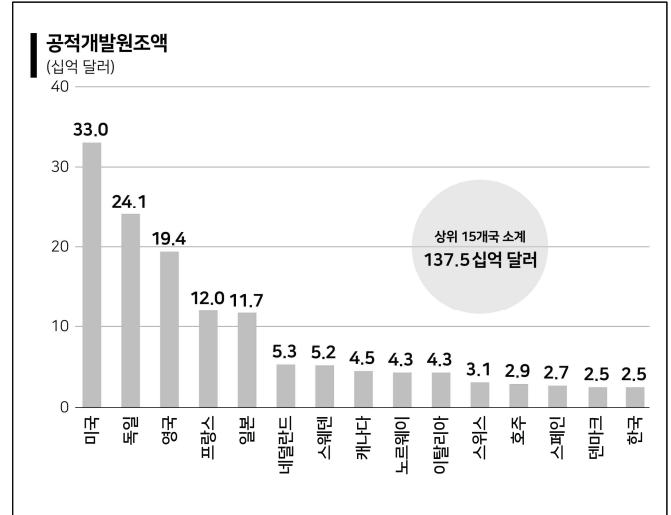
<조 건>

- 월간 출근 교통비=
- $$\{ \text{출근 1회당 대중교통요금} - (\text{기본 마일리지} + \text{추가 마일리지}) \times \left(\frac{\text{마일리지 적용거리}}{800} \right) \} \times \text{월간 출근 횟수}$$
- 기본 마일리지는 출근 1회당 대중교통요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함.
- | 출근 1회당 대중교통요금 | 2천 원 이하 | 2천 원 초과 3천 원 이하 | 3천 원 초과 |
|---------------|---------|-----------------|---------|
| 기본 마일리지 (원) | 250 | 350 | 450 |
- 추가 마일리지는 저소득층에만 다음과 같이 지급함.
- | 출근 1회당 대중교통요금 | 2천 원 이하 | 2천 원 초과 3천 원 이하 | 3천 원 초과 |
|---------------|---------|-----------------|---------|
| 추가 마일리지 (원) | 100 | 150 | 200 |
- 마일리지 적용거리(m)는 출근 1회당 도보·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의 합이며 최대 800m까지만 인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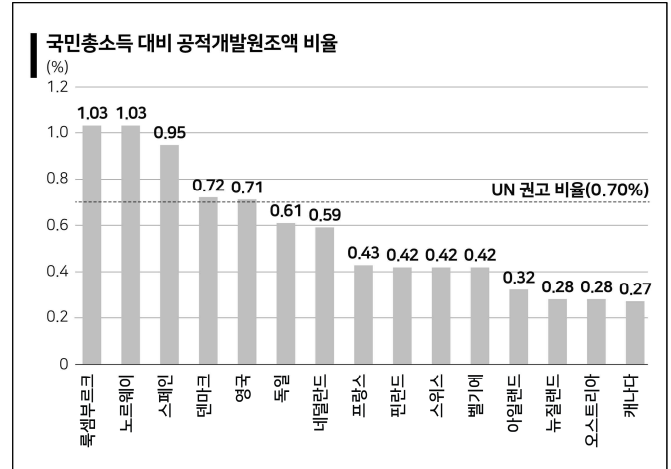
- ① 갑, 을, 병
 ② 갑, 병, 을
 ③ 을, 갑, 병
 ④ 을, 병, 갑
 ⑤ 병, 을, 갑

문 12. 다음 <그림>은 개발원조위원회 29개 회원국 중 공적개발원조액 상위 15개국과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액 비율 상위 15개국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1> 공적개발원조액 상위 15개 회원국



<그림 2>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액 비율 상위 15개 회원국



<보 기>

- ㄱ.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액 비율이 UN 권고 비율보다 큰 국가의 공적개발원조액 합은 250억 달러 이상이다.
 ㄴ. 공적개발원조액 상위 5개국의 공적개발원조액 합은 개발원조위원회 29개 회원국 공적개발원조액 합의 50% 이상이다.
 ㄷ. 독일이 공적개발원조액만 30억 달러 증액하면 독일의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액 비율은 UN 권고 비율 이상이 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문 13. 다음 <표>는 ‘갑’국의 2020년 농업 생산액 현황 및 2021 ~ 2023년의 전년 대비 생산액 변화율 전망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농업 생산액 현황 및 변화율 전망치
(단위: 십억 원, %)

구분	2020년 생산액	전년 대비 생산액 변화율 전망치		
		2021년	2022년	2023년
농업	50,052	0.77	0.02	1.38
재배업	30,270	1.50	-0.42	0.60
축산업	19,782	-0.34	0.70	2.57
소	5,668	3.11	0.53	3.51
돼지	7,119	-3.91	0.20	1.79
닭	2,259	1.20	-2.10	2.82
달걀	1,278	5.48	3.78	3.93
우유	2,131	0.52	1.12	0.88
오리	1,327	-5.58	5.27	3.34

※ 축산업은 소, 돼지, 닭, 달걀, 우유, 오리의 6개 세부항목으로만 구성됨.

<보 기>

- ㄱ. 2021년 ‘오리’ 생산액 전망치는 1.2조 원 이상이다.
 ㄴ. 2021년 ‘돼지’ 생산액 전망치는 같은 해 ‘농업’ 생산액 전망치의 15% 이상이다.
 ㄷ. ‘축산업’ 중 전년 대비 생산액 변화율 전망치가 2022년보다 2023년이 낮은 세부항목은 2개이다.
 ㄹ. 2020년 생산액 대비 2022년 생산액 전망치의 증감폭은 ‘재배업’이 ‘축산업’보다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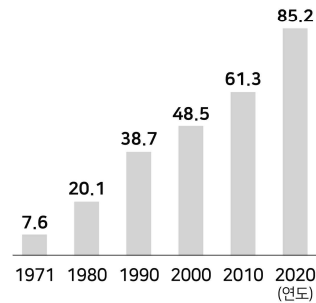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14. 다음 <그림>은 2020년 기준 A 공제회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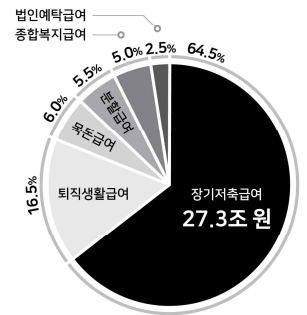
<그림> 2020년 기준 A 공제회 현황

연도별 회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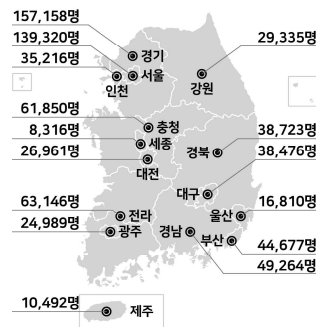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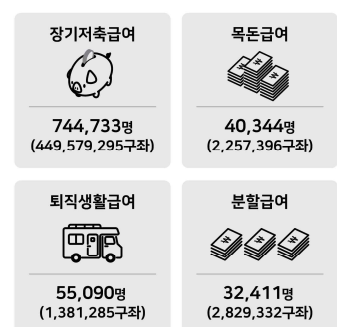
공제제도별 자산 규모 구성비



15개 지역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수



주요 공제제도별 가입 현황



※ 1) 공제제도는 장기저축급여, 퇴직생활급여, 목돈급여, 분할급여, 종합복지급여, 법인예탁급여로만 구성됨.

2) 모든 회원은 1개 또는 2개의 공제제도에 가입함.

- ①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수는 전체 회원의 85% 이하이다.
 ② 공제제도의 총자산 규모는 40조 원 이상이다.
 ③ 자산 규모 상위 4개 공제제도 중 2개의 공제제도에 가입한 회원은 2만 명 이상이다.
 ④ 충청의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수는 15개 지역 평균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수보다 많다.
 ⑤ 공제제도별 1인당 구좌 수는 장기저축급여가 분할급여의 5배 이상이다.

문 15. 다음은 국내 광고산업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이다.
이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사람이 있는 문화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2. XX. 담당부서 □□□□국

담당과장 ○○○ (044-203-○○○○) 담당자 사무관 △△△ (044-203-○○○○)

2018년 국내 광고산업 성장세 지속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광고사업체의 현황과 동향을 조사한 ‘2019년 광고산업조사(2018년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광고산업 규모는 17조 2,119억 원(광고사업체 취급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4.5% 이상 증가했고, 광고사업체당 취급액 역시 증가했다.

* 광고사업체 취급액은 광고주가 매체(방송국, 신문사 등)와 매체 외 서비스에 지불하는 비용 전체(수수료 포함)임.

－ 업종별로 살펴보면 광고대행업이 6조 6,239억 원으로 전체 취급액의 38% 이상을 차지했으나, 취급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온라인광고대행업이 16% 이상으로 가장 높다.

○ 2018년 기준 광고사업체의 매체 광고비* 규모는 11조 362억 원(64.1%), 매체 외 서비스 취급액은 6조 1,757억 원(35.9%)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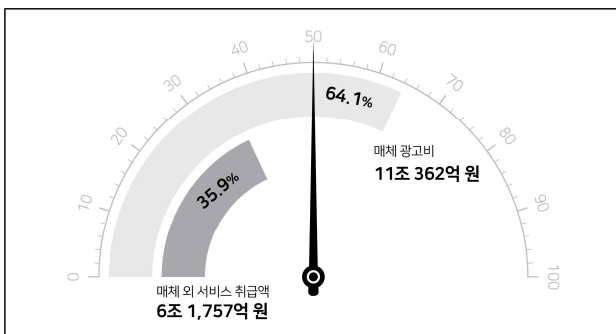
* 매체 광고비는 방송매체, 인터넷매체, 옥외광고매체, 인쇄매체 취급액의 합임.

－ 매체 광고비 중 방송매체 취급액은 4조 26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매체, 옥외광고매체, 인쇄매체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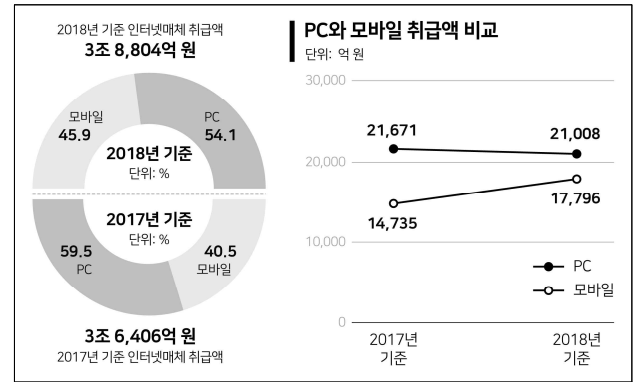
－ 인터넷매체 취급액은 3조 8,8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했다. 특히, 모바일 취급액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여 인터넷 광고시장의 성장세를 이끌었다.

－ 한편, 간접광고(PPL) 취급액은 전년 대비 14% 이상 증가하여 1,27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지상파TV와 케이블TV 간 비중의 격차는 5%p 이하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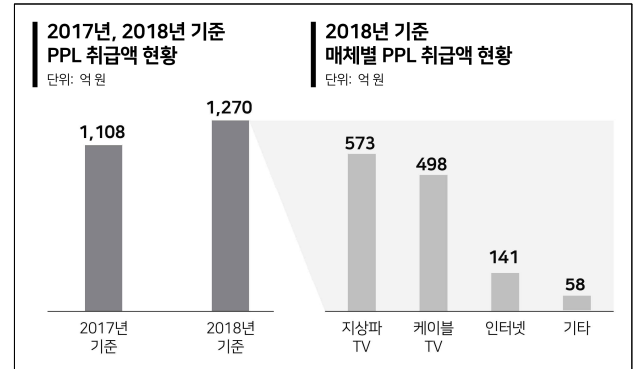
① 광고사업체 취급액 현황(2018년 기준)



② 인터넷매체(PC, 모바일) 취급액 현황



③ 간접광고(PPL) 취급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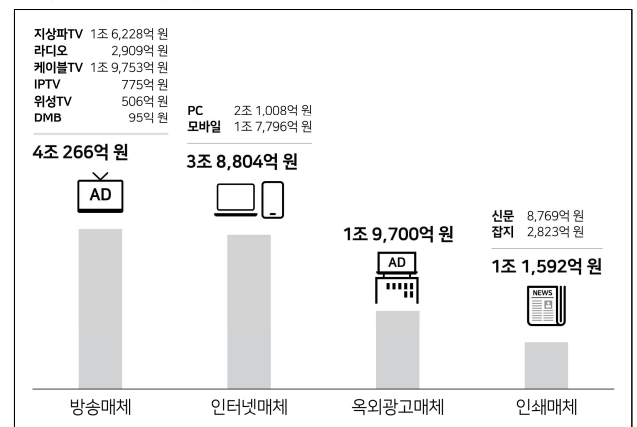


④ 업종별 광고사업체 취급액 현황

(단위: 개소,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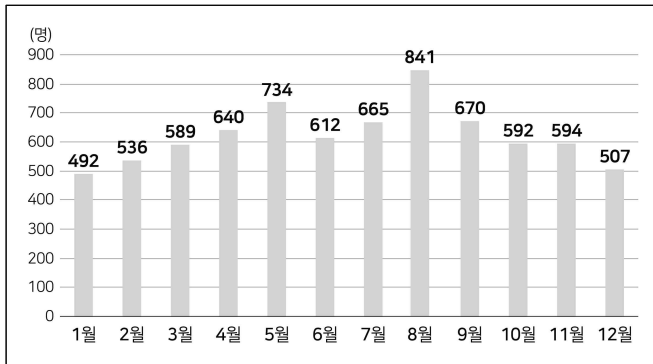
업종	구분	2018년 조사(2017년 기준)		2019년 조사(2018년 기준)	
		사업체 수	취급액	사업체 수	취급액
전체		7,234	164,133	7,256	172,119
광고대행업		1,910	64,050	1,887	66,239
광고제작업		1,374	20,102	1,388	20,434
광고전문서비스업		1,558	31,535	1,553	33,267
인쇄업		921	7,374	921	8,057
온라인광고대행업		780	27,335	900	31,953
옥외광고업		691	13,737	607	12,169

⑤ 매체별 광고사업체 취급액 현황(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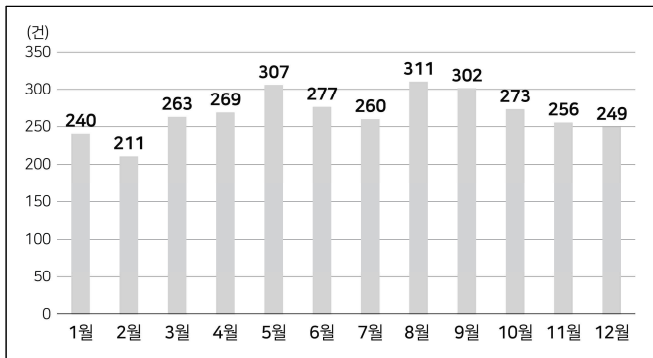


문 16. 다음 <그림>은 2020년 ‘갑’시의 교통사고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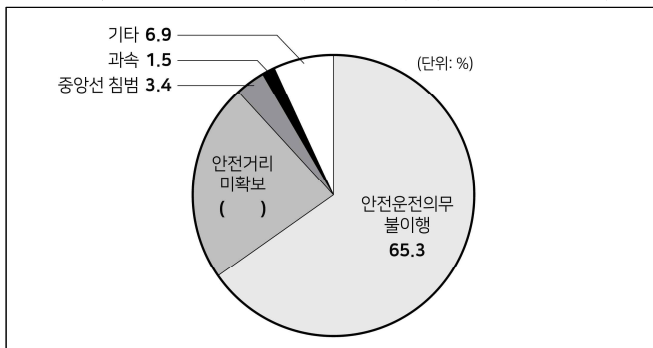
<그림 1> 2020년 월별 교통사고 사상자



<그림 2> 2020년 월별 교통사고 건수



<그림 3> 2020년 교통사고 건수의 사고원인별 구성비



<보 기>

- ㄱ. 월별 교통사고 사상자는 가장 적은 달이 가장 많은 달의 60% 이하이다.
 ㄴ. 2020년 교통사고 건당 사상자는 1.9명 이상이다.
 ㄷ. ‘안전거리 미확보’가 사고원인인 교통사고 건수는 ‘중양선 침범’이 사고원인인 교통사고 건수의 7배 이상이다.
 ㄹ. 사고원인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인 교통사고 건수는 2,000건 이하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ㄹ

문 17. 다음 <표>와 <정보>는 A ~ J 지역의 지역발전 지표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가’ ~ ‘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값으로만 나열한 것은?

<표> A ~ J 지역의 지역발전 지표

(단위: %, 개)

지표 지역	재정 자립도	시가화 면적 비율	10만 명당 문화시설수	10만 명당 체육시설수	주택 노후화율	주택 보급률	도로 포장률
A	83.8	61.2	41	111.1	17.6	105.9	92.0
B	58.5	24.8	31	(다)	22.8	93.6	98.3
C	65.7	35.7	35	103.4	13.5	91.2	97.4
D	48.3	25.3	43	128.0	15.8	96.6	100.0
E	(가)	20.7	37	133.8	12.2	100.3	99.0
F	69.5	22.6	41	114.0	8.5	91.0	98.1
G	37.1	22.9	7.7	110.2	20.5	103.8	91.7
H	38.7	28.8	7.8	102.5	19.9	(라)	92.5
I	26.1	(나)	6.9	119.2	33.7	102.5	89.6
J	32.6	21.3	7.5	113.0	26.9	106.1	87.9

<정 보>

- 재정자립도가 E보다 높은 지역은 A, C, F임.
 ○ 시가화 면적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주택노후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임.
 ○ 10만 명당 문화시설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10만 명당 체육시설수가 네 번째로 많은 지역임.
 ○ 주택보급률이 도로포장률보다 낮은 지역은 B, C, D, F임.

	가	나	다	라
①	58.6	20.9	100.9	92.9
②	60.8	19.8	102.4	92.5
③	63.5	20.1	115.7	92.0
④	65.2	20.3	117.1	92.6
⑤	65.8	20.6	118.7	93.7

- 문 18. 다음 <표>는 ‘갑’국 대학 기숙사 수용 및 기숙사비 납부 방식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고서>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19년과 2020년 대학 기숙사 수용 현황
(단위: 명, %)

대학유형 \ 연도		2020			2019		
		수용가능 인원	재학생 수	수용률	수용가능 인원	재학생 수	수용률
전체(196개교)		354,749	1,583,677	22.4	354,167	1,585,436	22.2
설 립 주 체	국공립 (40개교)	102,025	381,309	26.8	102,906	385,245	26.7
	사립 (156개교)	()	1,202,368	21.0	251,261	1,210,191	20.8
소 재 지	수도권 (73개교)	122,099	672,055	18.2	119,940	676,479	()
	비수도권 (123개교)	232,650	911,622	25.5	234,227	918,957	25.5

$$\text{수용률}(\%) = \frac{\text{수용가능 인원}}{\text{재학생 수}} \times 100$$

<표 2> 2020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 현황
(단위: 개교)

대학유형		납부 방식 기숙사 유형	카드납부 가능				현금분할납부 가능			
			직영	민자	공공	합계	직영	민자	공공	합계
전체(196개교)			27	20	0	47	43	25	9	77
설립주체	국공립 (40개교)		20	17	0	37	18	16	0	34
	사립 (156개교)		7	3	0	10	25	9	9	43
소재지	수도권 (73개교)		3	2	0	5	16	8	4	28
	비수도권 (123개교)		24	18	0	42	27	17	5	49

※ 각 대학은 한 가지 유형의 기숙사만 운영함.

<보고서>

2020년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2.4%로, 2019년의 22.2%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20%대 초반에 그쳤다. 대학유형별 기숙사 수용률은 사립대학보다는 국공립대학이 높고, 수도권 대학보다는 비수도권 대학이 높았다. 한편, ㉠ 2019년 대비 2020년 대학유형별 기숙사 수용률은 국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이, 비수도권대학보다 수도권대학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 대학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변화를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 국공립대학은 전년 대비 800명 이상 증가하였으나, 사립대학은 전년 대비 1,400명 이상 감소하였다.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은 2019년 119,940명에서 2020년 122,099명으로 2,100명 이상 증가하였으나, 비수도권 대학은 2019년 234,227명에서 2020년 232,650명으로 1,500명 이상 감소하였다.

2020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을 살펴보면, ㉢ 전체 대학 중 기숙사비 카드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37.9%에 불과하였다. 이를 기숙사 유형별로 자세히 보면, ㉣ 카드납부가 가능한 공공기숙사는 없었고, 현금분할납부가 가능한 공공기숙사도 사립대학 9개교뿐이었다.

- 문 19. 다음 <조건>과 <표>는 2018 ~ 2020년 ‘가’부서 전체 직원 성과급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가’부서 전체 직원의 2020년 기본 연봉의 합은?

<조 건>

- 매년 각 직원의 기본 연봉은 변동 없음.
- 성과급은 전체 직원에게 각 직원의 성과등급에 따라 매년 1회 지급함.
- 성과급 = 기본 연봉 × 지급비율
- 성과등급별 지급비율 및 인원 수

구분	성과등급		
	S	A	B
지급비율	20 %	10 %	5 %
인원 수	1명	2명	3명

<표> 2018 ~ 2020년 ‘가’부서 전체 직원 성과급
(단위: 백만 원)

직원	연도	2018	2019	2020
갑		12.0	6.0	3.0
을		5.0	20.0	5.0
병		6.0	3.0	6.0
정		6.0	6.0	12.0
무		4.5	4.5	4.5
기		6.0	6.0	12.0

- ① 430백만 원
- ② 460백만 원
- ③ 490백만 원
- ④ 520백만 원
- ⑤ 550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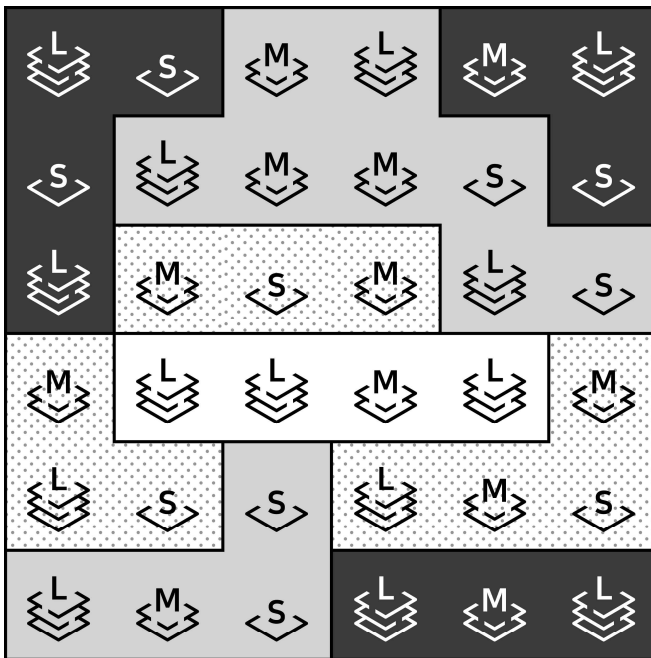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ㄷ, ㄹ
- ⑤ ㄴ, ㄷ, ㄹ

- 문 20. 다음 <표>는 ‘갑’국 하수처리장의 1일 하수처리용량 및 지역등급별 방류수 기준이고, <그림>은 지역등급 및 36개 하수처리장 분포이다. 이에 근거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하수처리장 1일 하수처리용량 및 지역등급별 방류수 기준
(단위: mg/L)

항목 1일 하수처리용량	지역등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질소	총인
500m ³ 이상	I	5 이하	20 이하	20 이하	0.2 이하
	II	5 이하	20 이하	20 이하	0.3 이하
	III	10 이하	40 이하	20 이하	0.5 이하
	IV	10 이하	40 이하	20 이하	2.0 이하
50m ³ 이상 500m ³ 미만	I ~ IV	10 이하	40 이하	20 이하	2.0 이하
50m ³ 미만	I ~ IV	1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그림> 지역등급 및 하수처리장 분포



지역 등급 하수처리장 1일 하수처리용량

□ I ≡ 500m³ 이상

○ II ≡ 50m³ 이상 500m³ 미만

△ III <S> 50m³ 미만

◇ IV

<보 기>

- ㄱ. 방류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이 ‘5mg/L 이하’인 하수처리장 수는 5개이다.
- ㄴ. 1일 하수처리용량 500m³ 이상인 하수처리장 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m³ 미만인 하수처리장 수의 1.5배 이상이다.
- ㄷ. II등급 지역에서 방류수의 총인 기준이 ‘0.3mg/L 이하’인 하수처리장의 1일 하수처리용량 합은 최소 1,000m³이다.
- ㄹ. 방류수의 총질소 기준이 ‘20mg/L 이하’인 하수처리장 수는 방류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이 ‘20mg/L 이하’인 하수처리장 수의 5배 이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ㄹ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 문 21. 다음 <표>는 직원 ‘갑’ ~ ‘무’에 대한 평가자 A ~ E의 직무평가 점수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직원 ‘갑’ ~ ‘무’에 대한 평가자 A ~ E의 직무평가 점수
(단위: 점)

평가자 직원	A	B	C	D	E	종합 점수
갑	91	87	()	89	95	89.0
을	89	86	90	88	()	89.0
병	68	76	()	74	78	()
정	71	72	85	74	()	77.0
무	71	72	79	85	()	78.0

- ※ 1) 직원별 종합점수는 해당 직원이 평가자 A ~ E로부터 부여받은 점수 중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한 점수의 평균임.
- 2) 각 직원은 평가자 A ~ E로부터 각각 다른 점수를 부여받았음.
- 3) 모든 평가자는 1 ~ 100점 중 1점 단위로 점수를 부여하였음.

<보 기>

- ㄱ. ‘을’에 대한 직무평가 점수는 평가자 E가 가장 높다.
- ㄴ. ‘병’의 종합점수로 가능한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는 5점 이상이다.
- ㄷ. 평가자 C의 ‘갑’에 대한 직무평가 점수는 ‘갑’의 종합 점수보다 높다.
- ㄹ. ‘갑’ ~ ‘무’의 종합점수 산출시, 부여한 직무평가 점수가 한 번도 제외되지 않은 평가자는 없다.

- ① ㄱ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 [문 22. ~ 문 23.] 다음 <표 1>과 <표 2>는 ‘갑’국 A ~ E 5개 도시의 지난 30년 월평균 지상 10m 기온과 월평균 지표면 온도이고, <표 3>과 <표 4>는 도시별 설계적설하중과 설계기본풍속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표 1> 도시별 월평균 지상 10m 기온
(단위: °C)

월 \ 도시	A	B	C	D	E
1	-2.5	1.6	-2.4	-4.5	-2.3
2	-0.3	3.2	-0.5	-1.8	-0.1
3	5.2	7.4	4.5	4.2	5.1
4	12.1	13.1	10.7	11.4	12.2
5	17.4	17.6	15.9	16.8	17.2
6	21.9	21.1	20.4	21.5	21.3
7	25.9	25.0	24.0	24.5	24.4
8	25.4	25.7	24.9	24.3	25.0
9	20.8	21.2	20.7	18.9	19.7
10	14.4	15.9	14.5	12.1	13.0
11	6.9	9.6	7.2	4.8	6.1
12	-0.2	4.0	0.6	-1.7	-0.1

<표 2> 도시별 월평균 지표면 온도
(단위: °C)

월 \ 도시	A	B	C	D	E
1	-2.4	2.7	-1.2	-2.7	0.3
2	-0.3	4.8	0.8	-0.7	2.8
3	5.6	9.3	6.3	4.8	8.7
4	13.4	15.7	13.4	12.6	16.3
5	19.7	20.8	19.4	19.1	22.0
6	24.8	24.2	24.5	24.4	25.9
7	26.8	27.7	26.8	26.9	28.4
8	27.4	28.5	27.5	27.0	29.0
9	22.5	19.6	22.8	21.4	23.5
10	14.8	17.9	15.8	13.5	16.9
11	6.2	10.8	7.5	5.3	8.6
12	-0.1	4.7	1.1	-0.7	2.1

<표 3> 도시별 설계적설하중
(단위: kN/m²)

도시	A	B	C	D	E
설계적설하중	0.5	0.5	0.7	0.8	2.0

<표 4> 도시별 설계기본풍속
(단위: m/s)

도시	A	B	C	D	E
설계기본풍속	30	45	35	30	40

문 22. 위 <표>를 근거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월평균 지상 10m 기온’이 가장 높은 달과 ‘월평균 지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달이 다른 도시는 A뿐이다.
 ㄴ. 2월의 ‘월평균 지상 10m 기온’은 영하이지만 ‘월평균 지표면 온도’가 영상인 도시는 C와 E이다.
 ㄷ. 1월의 ‘월평균 지표면 온도’가 A ~ E 도시 중 가장 낮은 도시의 설계적설하중은 5개 도시 평균 설계적설하중보다 작다.
 ㄹ. 설계기본풍속이 두 번째로 큰 도시는 8월의 ‘월평균 지상 10m 기온’도 A ~ E 도시 중 두 번째로 높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ㄷ, ㄹ

문 23. 폭설피해 예방대책으로 위 <표 3>에 제시된 도시별 설계적설하중을 수정하고자 한다. <규칙>에 따라 수정하였을 때, A ~ E 도시 중 설계적설하중 증가폭이 두 번째로 큰 도시와 가장 작은 도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규 칙>—

- 단계 1: 각 도시의 설계적설하중을 50 % 증가시킨다.
 단계 2: ‘월평균 지상 10m 기온’이 영하인 달이 3개 이상인 도시만 단계 1에 의해 산출된 값을 40 % 증가시킨다.
 단계 3: 설계기본풍속이 40m/s 이상인 도시만 단계 1 ~ 2를 거쳐 산출된 값을 20 % 감소시킨다.
 단계 4: 단계 1 ~ 3을 거쳐 산출된 값을 수정된 설계적설하중으로 한다. 단, 1.0kN/m² 미만인 경우 1.0kN/m²으로 한다.

두 번째로 큰 도시

가장 작은 도시

- | | | |
|---|---|---|
| ① | A | B |
| ② | A | C |
| ③ | B | D |
| ④ | D | B |
| ⑤ | D | C |

문 24. 다음 <표>는 2017년과 2018년 ‘갑’국에 운항하는 항공사의 운송 실적 및 피해구제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2017년과 2018년 국적항공사의 노선별 운송실적
(단위: 천 명)

국적항공사		노선		국내선		국제선	
		연도		2017	2018	2017	2018
대형 항공사	태양항공			7,989	6,957	18,925	20,052
	무지개항공			5,991	6,129	13,344	13,727
저비용 항공사	알파항공			4,106	4,457	3,004	3,610
	에어세종			0	0	821	1,717
	청림항공			3,006	3,033	2,515	2,871
	독도항공			4,642	4,676	5,825	7,266
	참에어			3,738	3,475	4,859	5,415
	동해항공			2,935	2,873	3,278	4,128
합계				32,407	31,600	52,571	58,7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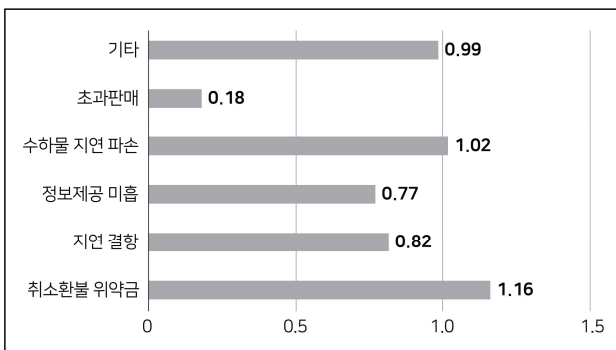
<표 2> 2017년 피해유형별 항공사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 비율
(단위: %)

항공사	취소환불 위약금	지연 결항	정보제공 미흡	수하물 지연 파손	초과 판매	기타	합계
국적항공사	57.14	22.76	5.32	6.81	0.33	7.64	100.00
외국항공사	49.06	27.77	6.89	6.68	1.88	7.72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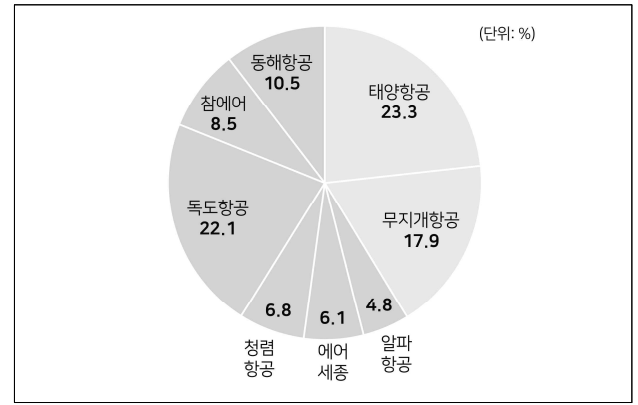
<표 3> 2018년 피해유형별 항공사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
(단위: 건)

항공사		피해유형	취소 환불 위약금	지연 결항	정보 제공 미흡	수하물 지연 파손	초과 판매	기타	합계	전년 대비 증가
		대형 항공사								
대형 항공사	태양항공	31	96	0	7	0	19	153	13	
	무지개항공	20	66	0	5	0	15	106	-2	
저비용 항공사	알파항공	9	9	0	1	0	4	23	-6	
	에어세종	19	10	2	1	0	12	44	7	
	청림항공	12	33	3	4	0	5	57	16	
	독도항공	34	25	3	9	0	27	98	-35	
	참에어	33	38	0	6	0	8	85	34	
	동해항공	19	32	1	10	0	10	72	9	
국적항공사		177	309	9	43	0	100	638	36	
외국항공사		161	201	11	35	0	78	48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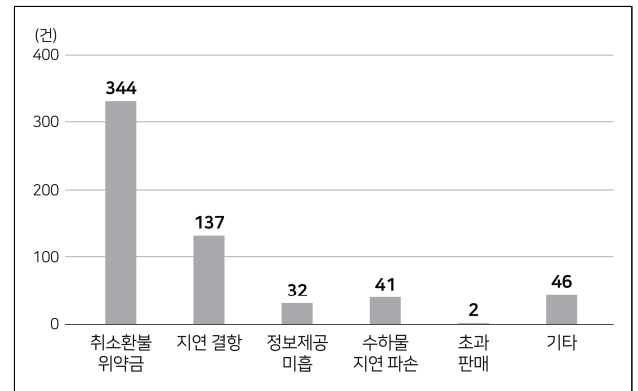
① 2017년 피해유형별 외국항공사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 대비 국적항공사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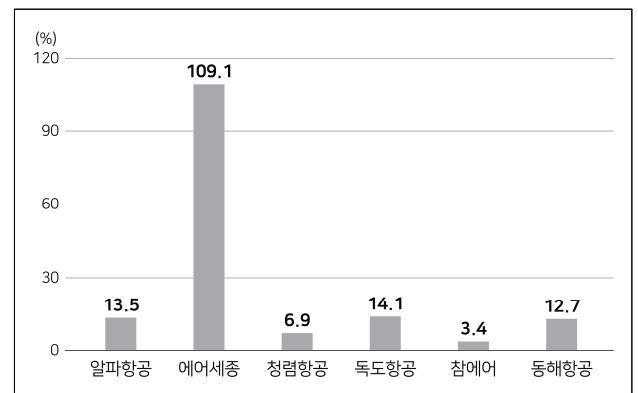
② 2017년 국적항공사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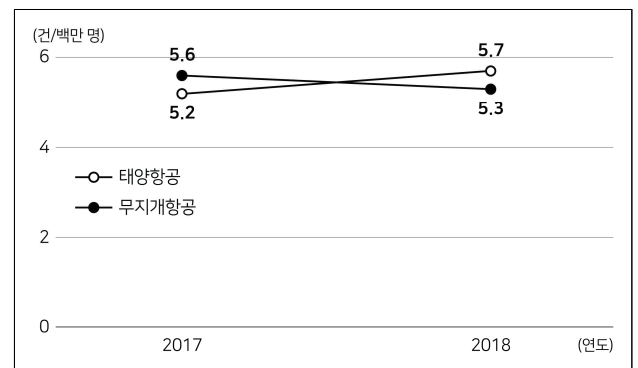
③ 2017년 피해유형별 국적항공사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



④ 2017년 대비 2018년 저비용 국적항공사의 전체 노선 운송실적 증가율



⑤ 대형 국적항공사의 전체 노선 운송실적 대비 피해구제 접수 건수 비



- 문 25. 다음 <표>는 2011 ~ 2020년 산불 건수 및 산불 가해자 검거 현황과 2020년 산불 원인별 가해자 검거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11 ~ 2020년 산불 건수 및 산불 가해자 검거 현황
(단위: 건, %)

연도 \ 구분	산불 건수	가해자 검거 건수	검거율
2011	277	131	47.3
2012	197	73	()
2013	296	137	46.3
2014	492	167	33.9
2015	623	240	38.5
2016	391	()	()
2017	692	305	()
2018	496	231	46.6
2019	653	239	36.6
2020	620	246	39.7
계	()	1,973	()

<표 2> 2020년 산불 원인별 산불 건수 및 가해자 검거 현황
(단위: 건, %)

산불 원인 \ 구분	산불 건수	가해자 검거 건수	검거율
입산자 실화	()	32	()
논밭두렁 소각	49	45	()
쓰레기 소각	65	()	()
담뱃불 실화	75	17	22.7
성묘객 실화	9	6	()
어린이 불장난	1	1	100.0
건축물 실화	54	33	61.1
기타	150	52	34.7
전체	()	246	39.7

- ※ 1) 산불 1건은 1개의 산불 원인으로만 분류함.
 2) 가해자 검거 건수는 해당 산불 발생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함.
 3) 검거율(%) = $\frac{\text{가해자 검거 건수}}{\text{산불 건수}} \times 100$

—————<보 기>—————

- ㄱ. 2011 ~ 2020년 연평균 산불 건수는 500건 이하이다.
 ㄴ. 산불 건수가 가장 많은 연도의 검거율은 산불 건수가 가장 적은 연도의 검거율보다 높다.
 ㄷ. 2020년에는 기타를 제외하고 산불 건수가 적은 산불 원인일수록 검거율이 높다.
 ㄹ. 2020년 전체 산불 건수 중 입산자 실화가 원인인 산불 건수의 비율은 35 %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